

그이의 고생은 갈수록 더해만 갔고 생활조차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나와 그이는 다시 고만하기 시작했고 하선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하기란 이토

[illegible]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을까。
서둘러 부끄러웠지만 나는 코흘
린 개들의 백원을 벌기 위해 새벽

아기의 차디찬 살갓을 내 몸이
비벼 나는 또 다시 묻구멍까지
꿇어들고는 가난이란 아들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아이를 상
냥한 아줄마란 칭호를 붙여주고
그것도 장사라고 단골이 생겼지
만 내 몸이 말이 아니었다.

말라서 친정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침묵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오만스러워 설악이조차 싫어하던 처녀시절의 내가 떠올라 못한 딸의 모습을 갈구하고 싶었다.

『그래 추운데 잠사는 잘되나』
『괜찮아요. 그런대로 하루생
활비는 되는것 같아요』

나는 금방이라도 쏟아질것같은
눈물을 삼키며 하늘을 보았다。

다. 버틸만큼 버티고 싶었다.

그러나 문제는 일종의 곳에서
생겼다. 이 학교는 아파트 주변
에 있는데 학교에서 자주 단속이
나오는 것이었다. 불법집회를
이들에게 판단하는 이유로 가끔무
서운 순경 아저씨도 다보겠다고 아
파트 단지의 부녀회장이 하의
를 하고 있다.

이전 단속으로 말미암아 아
들도 발길이 끊겼다. 면하게
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가
다르 단지의 따뜻한 봄날이
그리웠다. 나도 저 안의 자
처럼 머머진 홀드레스를 걸
고 따뜻한 주방에서 코피를
며 집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을

어린것의 불은 붉게 열이 있었
고 일곱살의 실컷이를 하며 손은
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한창
한창 걸작품인 벽돌이 밑에서 빠
지듯 나느사 있을 기쁘조차 없
었다. 그녀는 그만두고 갈려하
라렸다.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았

그이는 그런 나를 보며 차츰 결
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이가 다시 바다로 나가려는 데 완
강히 반대하면서도 또 하나의 나
는 어쩔수없이 이 시련을 이기는
것이 그 길뿐이라고 긍정했다.

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손
에 구멍이 뿔뿔을 열었는데 일하
뜻가가 또 이별이란 말인가. 나는
하늘을 향해 소리치르고 싶었다.
그이는 다시 수속을 밟기시작했
다. 그다음의 고별 때부터인
자. 그토록 잘나서지 못했다. 조만
나고 무려한 6개월을 하루하루
머뭇머뭇하고는 끝내 마지막 전화
소리와 그이는 또 가발을 챙겨야
했다.

영광의 고향이로 나는 기쁘게 있었다. 어김없이 시간은 또 우리들을 갈라놓았고 심약해지기 시작한 내 생활은 그저 먹고자는 생활이었다. 그이가 없다는 사실만이 나를 자꾸 아프게 했다.

잠시만 헤어져 있으면 되는 일
하는 마음 뒤에는 마지막 꼭두각
스 불친한 입의 있을것을 는 예
이 모든를 들었다. 이렇게 하나
왜 두인물을 하는 그이를 말리
못했을까? 나 자신을 미워하는 기
책의 종소리가 메아리되어 가
을 때렸다. 세상을 살아야 하며
같은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많
수인들이 갑자기 진구한 보
럼 어두움에 빛을 내파했다. 이
었다. 건강도 좋지않고 아이를
들씩 있으니 좀처럼 무일하
는것도 무인어것처럼 느껴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려나
런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나
런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다.
남편이 없어 자유로운 우리집
가끔씩 동네 여자들의 진찰장
가 되었다. 그런 내게 가까이

게 보라구?... 아 당신 남편이
야 학구마다 여자애다 술일텐
데 이렇게 애쓰고 산다구 인생
두 번 사나? 뜨겁고 좋은 사우나
나 다녀와서 우리 저녁에 멋들
어 진공에 가볼까』

『아름답두 있구 술두 있구 젊
음과 낭만이 있는곳. 그리구 멋
진 사내들이 있는곳 말야』
『안돼 나는...』

그를 보았다. 영영에게 자살한 친구를 뵈었다. 친구의 친척들이 그를 데려와서 수습을 하려고 했었다. 나를 뵈는 수습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도가 급해서 잊지 않고 찾아왔다. 그의 속은 각색된 듯 하기도 했다. 그의 무해한 말은 듣고서야 확실히 알았다. 그는 전한 오빠였다. 불타죽은 시골집이다. 말은 짧지만 뽀얀 피부, 단정한 습관, 무릎 꿇을 때는 눈이 깊었다.

다. 이것이 결혼의 보람일 뿐이
란 말인가? 이것이 나의 생애의
란 말인가? 멋진 옷이란도 한벌
사 입고 청말미치바리고도 하였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되풀이 될
것을 그이로부터 긴 사연의 편지
가 날아왔다. 같은 처지의 부인
이 출마함에 가산을 탕진하고 자
신을 남근주체를 가출하여도 선
원은 정신 착란자의 절망의 이다름
할차에 귀국할것이라는 소식이었
다. 나는 그 편지를 받은 순간 자신
의 미련함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연자의 정부유사박에 엮인 그땀
그땀들의 린자라 내게 가져다
주는 불면의란 전설을 엮었다. 자
꾸만 물은 아와기가 아프기 시작
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만이나
의 질인가 생각하던 나는 결단을
내기로 했다. 30년을 뜯겨 살
아온 서울. 그 괴리의 의 함정에서
길을 나는 과연 고집스럽게 갔고
고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작고
보잘것 없는 곳에도 인간의 뜻을
은 있게 마련인데. 서울이 내고
향이지만 슬픔을 줄지 않는 것을 고
진해 아할 이부가 있었었다.

그이도 어느 때와 달리 많이 상
해 있었다. 나는 그 신원수첩을
볼사르며 생각했다. 어떠한 고생
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 해
어지지 않겠다고. 젊음의 10여년
을 바다에 바친 그이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사를 했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제는 그런대로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시작. 참다운 삶의 고향으로 이
오겠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있어 귀한 보석처럼 지켜지며 그
많은 아픔이 사람들을 이끄는
의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물어도 그 옛 추억을
되살아나게 하며 행위를 하는 사람
은 모두 그 길을 걸어 나갔었다.

그가 돌아올때면 내가 구하
한 모든것개를 찾으며 그들을 보
내 평안한 양으로 되돌아오게 하
를 내가 돌보아 돌보아 주리라
아름답고 아름다운 나라를 펼치
나. 나 그 장엄 것에도 놀 감사하
을 배웠다. 이제 그 이별을 영
하지 않아도 되며 황사가 아닌
모든 것이 새로운 평화가 되어
돌아오니 내가 모든것을 배웠다. 만
뜻한 모든것을 두손으로 감싸 아
고 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났으니
래도 어진 양 만만하게 웃으며
신이 살아있고 그 다짐한다.